



#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 적용

김인정<sup>1</sup> · 장진주<sup>2</sup> · 신성희<sup>3</sup>

<sup>1</sup>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간호사, <sup>2</sup>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강사, <sup>3</sup>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Actor and Partner Effects o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in Couples with ADHD Child: Dyadic Data Analysis

Kim, In Jeong<sup>1</sup> · Chang, Jin-Joo<sup>2</sup> · Shin, Sung Hee<sup>3</sup>

<sup>1</sup>Nurs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Republic of Korea; <sup>2</sup>Instructor, Kyung Hee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sup>3</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spous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in couples with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103 couples (103 husbands, 103 wives) with children with ADHD visiting child adolescent psychiatry clinic or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in Seoul, Gyeonggi-do, South Korea. Data were analyzed by SPSS 20.0 and AMOS 20.0 program. **Results:** The parenting efficacy of husbands and wives had direct actor effect ( $\beta=-.69, p=.004$ ;  $\beta=-.60, p=.004$ ) and partner effect ( $\beta=-.22, p=.007$ ;  $\beta=-.18, p=.026$ ) on their parenting stress. In addition, husbands and wives's parenting efficacy had a direct actor effect ( $\beta=-.25, p=.031$ ;  $\beta=-.21, p=.025$ ) on their depression and indirect actor effect ( $\beta=-.25, p=.004$ ;  $\beta=-.34, p=.004$ ) through parenting stress on their depression. However, parenting stress did not show a partner effect on depression. Husband and wife's parenting efficacy had a direct effect ( $\beta=.46, p=.004$ ;  $\beta=.25, p=.009$ ) on perceived spousal support. The effects of husbands and wives were the same in actor effect size ( $\chi^2$  differences=0.74,  $p=.390$ ) and partner effect size ( $\chi^2$  differences=0.20,  $p=.652$ ) of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stress. In addition, the effect sizes of husbands and wives were the same in actor effect size ( $\chi^2$  differences=0.93,  $p=.334$ ) and partner effect size ( $\chi^2$  differences=0.15,  $p=.704$ ) for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maximize interaction between couples with ADHD children.

**Key Word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Depression, Parenting, Efficacy, Stress

주요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 양육, 효능감, 스트레스

\* 이 논문은 제1저자 김인정의 석사학위논문 일부 발췌한 것임

IRB 승인기관 및 번호: 경희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No: KHSIRB-15-021(RA)]

Corresponding author: Sung Hee Shin (<https://orcid.org/0000-0003-4113-3953>)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Republic of Korea

Tel: +82-2-961-0917 Fax: +82-2-961-9398 E-mail: [sunghshin@khu.ac.kr](mailto:sunghshin@khu.ac.kr)

Received: 18 September 2023 Revised: 14 November 2023 Accepted: 17 November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아동·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행동 장애 중의 하나로서, 일차적으로 주의집중력 부족, 과잉행동 및 충동성으로 인해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관계 중 두 가지 이상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질병이다[1]. 주로 ADHD는 12세 이전에 발병하여 다수의 경우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장애로 아동의 경우 5%, 성인은 2.5%의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1]. 우리나라의 경우도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ADHD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44,741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81,512명으로 약 3만6천771명이 증가하여 82.19%의 증가율을 보였다[2].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 해 ADHD 치료 환자는 오천여 명 정도로 ADHD 추정 유병률 6.5%를 대입해 환산할 경우, 실제 치료율은 10.0% 이하로서 다른 신체질환에 비해 치료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3]. 또한 ADHD 진단을 받은 자녀의 부모 5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치료를 자의로 중단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4]. 이는 주로 부모 또는 자녀 스스로 증상이 나았다고 판단하거나(34.0%),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거부(18.0%), 자녀가 통원 자체를 거부한다(14.0%) 등의 이유였다[3].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자녀의 ADHD를 질병으로 인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ADHD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많은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3].

ADHD 아동·청소년들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반항적이며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며 사소한 일, 과제 등을 혼자 처리하지 못하는 데 이로 인해 ADHD 자녀를 둔 부모는 건강한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훨씬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4]. ADHD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 양육스트레스는 그 자체로도 심각성을 띠지만, 자녀의 장애와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부모의 갈등과 우울을 초래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4,5]. 또한 ADHD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실망하게 되고, 일반 자녀들과의 차이에서 오는 반복적인 실망감의 누적으로 인해 심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즉 ADHD 자녀의 문제가 심할수록 부모의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ADHD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정신과 치료와 약물 투여 등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가지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다[4,5]. 이는 부모와 ADHD 자녀 간에 부정적 의사소통을 야기하여 자녀의 장애를 심화시키거나, 부모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부부간 유대감 약화, 갈등 및 이혼 별거 등의 가족 해체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이와 같이 ADHD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스트레스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감,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및 좌절감 등을 겪는다[4,5]. 이러한 측면에서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하여 ADHD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며, ADHD 자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한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ADHD 진단을 받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5]. ADHD를 진단받은 자녀들은 끊임 없이 요구 사항을 만들어내며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 부모는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이 떨어지고 부모 스스로 자신의 양육효능감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어 ADHD 자녀를 둔 부모는 건강한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 양육효능감이란 부모가 자신을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6]. 이러한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 저하는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죄책감과 우울을 증가시킨다[7]. 또한 최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8]. 배우자의 지지는 가족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9]. 많은 선행연구에서 배우자와 불화가 있거나 지지 체계가 없는 경우는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수 있고[8,9], 적극적인 배우자의 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9].

이와 같이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관련 연구에서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 해 볼 때, 양육스트레스를 Hobfoll[10]의 자원보존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원보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존재로서 자원의 상실 및 획득 간의 역동이 스트레스 원의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 인자와 사건들이 자원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10]. 이에 많은 연구에서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좌절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은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보존이론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선행연구[11,12]는 있으나, ADHD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다.

더욱이 자녀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양육해야 하는 ADHD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부부나 커플 간 친밀

하고 오랜 시간 함께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Cook과 Kenny[13]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 APIM)의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제안하였다. APIM은 부부처럼 짝 관계에 있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양방향 간 영향을 평가하고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자료의 예측 관계를 검증할 때 이용되며, 특정 관계에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의 정보를 제공해준다[13]. APIM은 커플관계의 자료를 하나의 모형 내에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는데 적절한 분석방법이며, 상대방에 미치는 영향력이 누가 더 큰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대인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13]. 이러한 측면에서 부부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도 APIM의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커플 간 차이와 커플 내 영향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14,15]. 지금까지 자녀 양육과 관련한 APIM을 이용한 연구로 부부갈등[15], 스트레스와 우울[14] 등이 있다. 그러나 ADHD 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의 충동조절 등의 행동문제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있어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특성과 관련한 커플 간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Hobfoll[10]의 자원 보존 이론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Cook과 Kenny[13]의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변인들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우울을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정도 및 차이를 파악한다.
- 2)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파악한다.

##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는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Hobfoll[10]의 자원 보존 이론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념적 기틀을 설정하였다. 특히 부부 간 상호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ook과 Kenny[13]의 커플관계자료의 분석방법인 APIM을 적용하여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APIM에서는 자신의 독립변수가 자신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과(actor effect)라 하며, 상대방이 독립변수가 자신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라 한다.

Hobfoll[10]은 좋은 관계형성은 사람들이 자원을 획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상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원은 손실되고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서적 소진은 외부와 단절함으로써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다[10]. 자원보존이론과 관련한 초기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 자원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내적 자원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두는 자원을 유지 및 획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원의 상실은 스트레스가 발생하므로 적은 자원을 가진 개인은 잠재적인 자원 상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개인은 미래의 자원획득을 위한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최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에서 이 자원보존이론을 활용하고 있다[11,12]. Kim과 Ha[11]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Nam 등[12]도 자원보존이론을 중심으로 발달지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ADHD 자녀를 둔 부부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양육효능감[7,11,12]을 개인 내적 자원으로 보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8,9]를 외적 자원으로 보아 이들이 상황인식인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레스는 정서적 소진인 우울[4,7]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족 관계 내에서 배우자의 지지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8,9]를 근거로 양육효능감이 배우자의 지지를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부부 변인들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Cook과 Kenny[13]의 APIM을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양육스트레스 또한 자신과 배우자의 우울[9,14]에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Figure 1).

APIM에서는 커플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며, 남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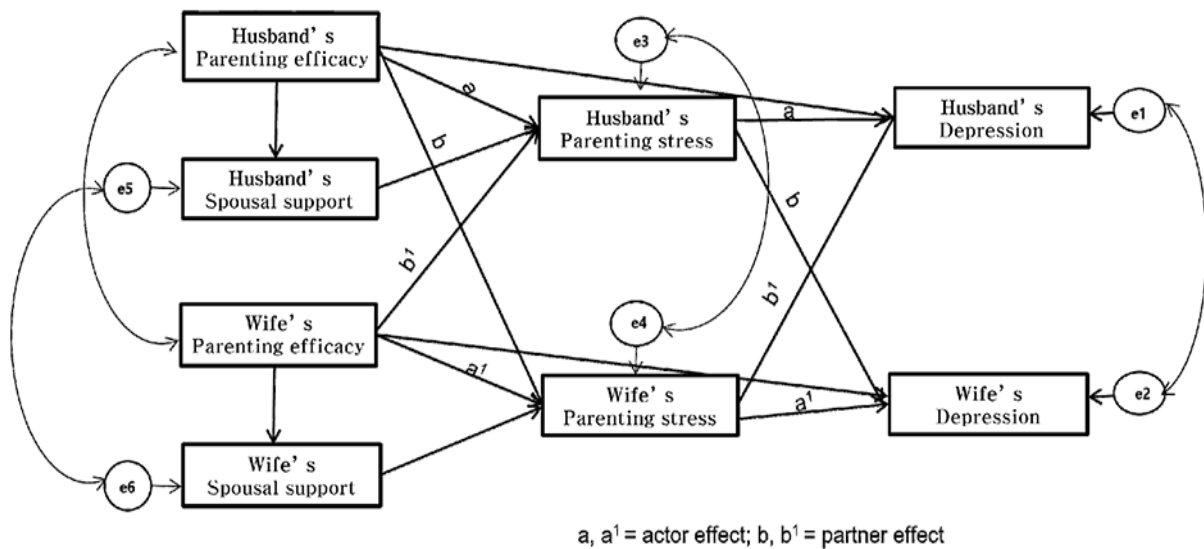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tical model

아내의 종속변수를 추정할 때 독립변수로 추정되지 않는 부분(잔차, residual)이 자녀 또는 확대가족과 같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므로 잔차(residual)간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13]. 이처럼 잔차 간 상관성을 가정하면 설정한 독립변수들의 순수한 설명력을 추정할 수 있다 [13]. 따라서 본 가설적 모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스, 우울은 잔차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 4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4개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ADHD 자녀를 둔 부부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103쌍(남편 103명, 아내 103명, 총 206명)의 커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커플이 분석 단위가 되므로 부부를 쌍으로 총 150쌍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110쌍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73.3%),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7쌍을 제외한 103쌍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경로분석의 경우 표본

의 크기는 추정되는 모수 개수의 최소한 2~5배가 되어야 하며 [16], 모수가 14개인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최소한의 표본 수보다 크므로 안정된 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ook과 Kenny [13]는 상호의존성이 있는 커플관계 자료에서 표본 수가 80쌍이고 변수의 상관관계가 .4 이상이면 .96의 power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를 쌍으로 표집하는 본 연구의 탈락률을 약 30%로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표본 수는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무난한 크기라 할 수 있다.

###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부부의 연령, 종교, 교육 정도, 직업, 월 가족 소득, ADHD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양육효능감 16문항, 배우자 지지 13문항, 양육스트레스 30문항, 우울 20문항으로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원저자와 변안자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 1) 양육효능감

Gibaud-Wallston과 Wandersman [17]이 개발한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PSOC) 도구를 Shin과 Chung [18]이 변안하고 수정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등의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으로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 각자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과 Chung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8$ 이었고, 본 연구에서 남편의 Cronbach's  $\alpha=.87$ , 아내의 Cronbach's  $\alpha=.86$ 이었다.

#### 2) 배우자 지지

Abidin[19]의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의 하위 척도인 배우자 협력을 Shin과 Chung[18]이 번안·수정한 것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서로 대화하고 배우자와 얼마나 잘 합의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다. '배우자는 내가 부모 역할을 쉽게 하도록 해준다', '배우자와 나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눈다' 등 총 13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으로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 각자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과 Chung[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였으며, 본 연구에서 남편의 Cronbach's  $\alpha=.89$ , 아내의 Cronbach's  $\alpha=.91$ 이었다.

#### 3) 양육스트레스

Abidin[19]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를 Seo[20]가 번안하고, Shin과 Chung[18]이 수정·보완한 30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부부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이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포기하고 있다', '내 자녀는 다른 아이보다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등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30점에서 150점이다. 긍정문으로 표현된 11문항은 역 채점을 하였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 각자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과 Chung[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1$ 이었고, 본 연구에서 남편의 Cronbach's  $\alpha=.87$ , 아내의 Cronbach's  $\alpha=.89$ 였다.

#### 4) 우울

Randloff[21]가 개발한 우울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를 Chon 등[22]이 번안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0점에서부터 3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0-60점으로 16점 이상은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우울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각자의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n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남편의 Cronbach's  $\alpha=.88$ , 아내의 Cronbach's  $\alpha$

$=.93$ 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경희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KHUIRB-15-021)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4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녀의 질환 노출을 꺼려하는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의표출과 표출된 대상자가 연구대상자 선정조건에 맞는 지인을 소개해주는 방식의 눈덩이표출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직접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전화를 걸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가 가능한 4개의 센터와 4개의 외래를 선정하고, 약속된 날짜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였다.

각 기관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ADHD 자녀를 둔 부모를 소개받아 본 연구의 목적, 대상, 연구 절차, 연구 참여 시 얻을 수 있는 이점, 자료에 대한 비밀 보장, 연구의 자발적 참여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받고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기간 중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연구 참여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센터나 병원 이용에 부당한 영향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5분 내외였고, 수거가 즉시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부부 중 한 명만 기관을 방문하였거나 연구자가 한 명만 대면상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부일지라도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구 목적, 설문방법, 동의서 및 설문지를 밀봉이 가능한 봉투에 담아 배부하였다. 작성된 서면동의서와 설문지는 약속된 날짜에 가져 오거나 회신주소가 포함된 동봉한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커플 관계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이므로 설문지에 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는 연구 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스, 우울 정도와 차이는 평균, 표준편차와 *t*-test로 분석하였다.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으며,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가설적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확인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Chi-square ( $\chi^2$ ),  $\chi^2/df$ , RMSEA (Root Mean Square of Error Approximation),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증분적합지수인 CFI (Comparative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와 TLI (Turker-Lewis Index)로 확인하였다.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등가제약을 설정한 모형에서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추정된 계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Z점수로 표준화하였고, 이 점수를 사용하여 효과추정을 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종교, 학력, 직업유무, 가족 월 소득, ADHD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확인하였다(Table 1). 연령은 남편의 경우, 40~49세 70.8%로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아내의 경우도 40~49세 52.4%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남편 55.4%, 아내 69.9%였으며, 학력은 남편(50.5%)과 아내(43.7%) 모두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직업은 남편의 99.0%가 있었고, 아내는 44.7%가 있었다. 월 가족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이 34.0%로 가장 많았다. ADHD 자녀의 성별은 남아(70.8%)가 여아(29.2%)보다 많았으며, 자녀의 연령은 10~14세(50.5%)가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uples with ADHD Children

(N=103 pairs)

Characteristics	Categories	Husbands (n (%))	Wives (n (%))
Age	30~39	25 (24.3)	46 (44.7)
	40~49	73 (70.8)	54 (52.4)
	≥ 50	5 (4.9)	3 (2.9)
Religion	have	57 (55.4)	72 (69.9)
	have not	46 (44.6)	31 (30.1)
Education	≤ High school	28 (27.2)	33 (32.0)
	College	23 (22.3)	25 (24.3)
	≥ University	52 (50.5)	45 (43.7)
Job	have	102 (99.0)	46 (44.7)
	have not	1 (1.0)	57 (55.3)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 200	16 (15.5)	
	200~299	28 (27.2)	
	300~399	24 (23.3)	
	≥ 400	35 (34.0)	
ADHD Child's gender	Male	73 (70.8)	
	Female	30 (29.2)	
ADHD Child's age	≤ 5	6 (5.8)	
	6~9	40 (38.8)	
	10~14	52 (50.5)	
	≥ 15	5 (4.9)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able 2.** Level of Parenting Efficacy, Spousal Support,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in Couples with ADHD Children

(N=103 pairs)

Variables	Husbands (n=103)					Wives (n=103)					t	p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Parenting efficacy	50.39±8.08	30	74	0.43	0.66	50.07±8.69	30	80	0.73	1.32	-0.30	.765
Spousal support	42.22±7.67	19	58	-0.51	0.33	40.20±9.02	17	62	-0.05	-0.34	-2.47	.015
Parenting stress	84.72±14.03	47	139	0.09	0.57	89.73±15.65	47	138	0.09	0.57	3.57	.001
Depression	14.94±8.38	3	46	1.07	1.17	17.82±10.22	0	57	0.99	1.83	2.79	.006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2.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정도 및 차이**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정도 및 차이를 확인한 결과(Table 2),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t=0.30, p=.765$ ), 배우자 지지는 남편 42.22( $\pm 7.67$ )점, 아내 40.20( $\pm 9.02$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편이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 정도가 더 높았다( $t=2.47, p=.015$ ). 양육스트레스는 남편 84.72( $\pm 14.03$ )점, 아내 89.73( $\pm 15.65$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내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남편보다 높았다( $t=3.57, p=.001$ ). 우울은 남편 14.94( $\pm 8.38$ )점, 아내 17.82( $\pm 10.22$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내의 우울 정도가 남편보다 높았다( $t=2.79, p=.006$ ).

**3.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측정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남편과 아내 각각 2 이하의 범위를 보여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하였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2~.73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NFI, CFI, TLI, RMSEA, SRM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NFI, CFI, TLI는 0.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며, RMSEA와 SRMR은 0.05보다 작으면 좋음, 0.10보다 작으면 보통, 0.10 이상이면 낮은 적합도임을 의미한다[23].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적 아내모형을 검증한 결과,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chi^2=15.40, df=9, p=.081, NFI=.96, CFI=.98, TLI=.94, RMSEA=.07, SRMR=.05$ 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모형을 확정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검증을 통해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다중상관가중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는 내생변수의 변량이 외생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정도는 각각 우울 34.8%, 47.6%, 양육스트레스 56.8%, 54.5%, 배우자 지지 21.0%, 6.0%로 나타났다.

남편의 우울에는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효과(총 효과  $\beta=.50$ , 직접효과  $\beta=.25$ , 간접효과  $\beta=.25$ )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총 효과  $\beta=.35$ , 직접효과  $\beta=.35$ ) 순이었다.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아내의 변인들의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는 없었으나, 아내의 양육효능감( $\beta=.18, p=.026$ )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자기효과(총 효과  $\beta=.70$ , 직접효과  $\beta=.69$ )가 있었으며, 아내의 자기효능감(총 효과  $\beta=.18$ , 직접효과  $\beta=.18$ ) 순이었다.

아내의 우울에는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자기효과(총 효과  $\beta=.55$ , 직접효과  $\beta=.21$ , 간접효과  $\beta=.34$ )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총 효과  $\beta=.52$ , 직접효과  $\beta=.52$ ) 순이었다. 아내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의 변인들의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는 없었으나, 남편의 양육효능감( $\beta=.22, p=.007$ )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총 효과 크기 면에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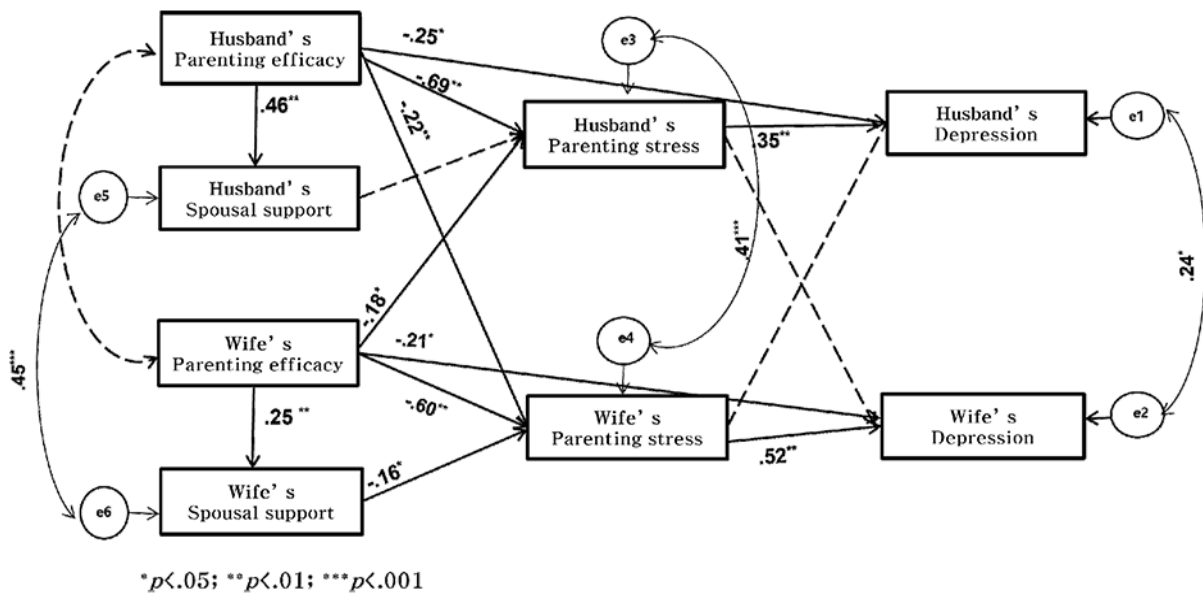


Figure 2. Test for hypothetical model

양육효능감(총 효과  $\beta=-.64$ , 직접효과  $\beta=-.60$ , 간접효과  $\beta=-.04$ ), 남편의 양육효능감(총 효과  $\beta=-.22$ , 직접효과  $\beta=-.22$ ), 아내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총 효과  $\beta=-.16$ , 직접효과  $\beta=-.16$ ) 순이었다.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기저모형과의  $\chi^2$  값의 차이검증을 통해 자기 효과(a=a')와 상대방 효과(b=b')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 효과( $\chi^2$  differences=0.74,  $p=.390$ )와 상대방 효과( $\chi^2$  differences=0.20,  $p=.65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각각 동일한 크기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 $\chi^2$  differences=0.93,  $p=.334$ )와 상대방 효과( $\chi^2$  differences=0.15,  $p=.704$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동일한 크기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과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 $\gamma=.45$ ,  $p<.001$ ), 양육스트레스( $\gamma=.41$ ,  $p<.001$ )와 우울( $\gamma=.24$ ,  $p=.020$ )의 잔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특히 지원 보존 이론[10]을 바탕으로 양육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Cook과 Kenny[13]의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 효과 간 크기 비교에 초점을 둬으로써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우울 예방과 중재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정도 및 차이를 확인한 본 연구결과에서 양육효능감에는 부부 간 차이가 없었으나,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은 부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평균 50.07( $\pm 8.69$ )점으로 장애아동 엄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Kim의 연구[24]의 56.07( $\pm 8.16$ )보다도 낮은 점수이다. 이는 ADHD 자녀의 엄마는 일반 아동 엄마보다 낮은 양육효능감을 가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4,5]와 일관된 결과로, ADHD 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의 반복적이나 통제되지 않는 문제 행동으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3]. 더욱이 ADHD는 정서문제와 행동문제를 함께 동반하고 있으므로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절실함을 시사한다. 남편과 아내의 양육효능감 차이는

ADHD 또는 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정도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없어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정도와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ADHD 자녀를 둔 부부 각각이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는 남편에 비해 아내의 점수가 낮았으며, 부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부부가 각각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에 차이가 있고[9],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부의 경우 아내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가 남편이 지각하는 지지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Kuem 등[25]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즉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을 아내가 주로 책임지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내가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내의 점수가 높았으며, 부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남편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고 주장한 Lee[9]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높고 특히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다는 보고[7,9]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Kim[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에 자녀 양육에 남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양육스트레스 완화 및 부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며 특히 ADHD 자녀를 둔 부부에서도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우울 정도는 남편 14.94점, 아내 17.8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내가 남편보다 높았다. 우울도구인 CES-D[21]의 임상적 우울 절단점이 16점임을 고려하면, 아내의 평균은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자녀를 둔 부부의 우울과 관련한 Keum 등[25]의 연구에서 65.2%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 심각한 수준의 확정적 우울이 34.8%라는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즉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특성을 고려한 우울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를 부부 커플을 대상으로 부부 간 정도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또한 추후 ADHD 자녀를 둔 부부 대상의 커플자료 반복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자기 효과가 있었다. 또한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우



우에 직접적인 자기효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자기 효과가 있었다. 또한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이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에 직접적인 자기 효과가 있었다. 아직까지 남편의 양육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장애 자녀를 둔 남편에 관한 연구에서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의 배우자 지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Park과 Cheon[2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발달 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부적인 관계가 있었던 Choi[2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ADHD 자녀의 경우 자녀 양육에서 겪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어려움이 남편의 통제 범위를 넘어가거나 변화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서 ADHD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우울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를 위해서 남편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남편이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부 간 협력이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애 아동을 가진 부부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Jeon[2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ADHD 자녀를 둔 남편에게 배우자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등의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남편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ADHD 자녀를 둔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아내 변인의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는 없었으나,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남편의 우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로 확인되었으므로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편의 우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발달장애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0]와 마찬가지로 ADHD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내의 내적 자원인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남편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편의 시간적 제한으로 ADHD 자녀 양육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울 경우 아내에게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증재로 아내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춰 간접적으로는 남편의 우울을 낮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는 남편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자기효과가 있으므로 부부커플 대상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간호중재가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배우자 지지와 양육효능감이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살펴보면, 아내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효과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직접적인 자기 효과가 있었다. 또한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자기 효과도 있었다. 이는 아내의 우울과 관련하여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쳐 우울이나 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Kim[7]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Park과 Sung[4], Kim[7]의 연구에서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아내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Park과 Cheon[5]의 연구와도 결과가 일치하며,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더 반응적이고 덜 처벌적이며, 자녀와 더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Park과 Sung[4]의 보고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ADHD 증상을 보이는 자녀 양육 시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부로서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덜 느끼고 양육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ADHD 자녀를 둔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대처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내 또한 의사소통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ADHD 문제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ADHD 자녀를 둔 아내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 변인의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는 없었으나,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특히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아내가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가 주는 자기효과보다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주는 상대방 효과의 크기가 컸다. 아내의 ADHD 자녀 양육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고, 이러한 개인적 또는 외부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DHD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에 대한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는데,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장애자녀를 둔 남편의 역할 수행 정도가 낮을수록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Lee[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ADHD 자녀를 둔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아내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남편의 양육효능감이나 남편와의 관계, 양육 참여나 지지가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소라고 한 연구[9] 등을 통해 최근에 남편의 역할의 중

요성이 제기되고 남편의 역할 수행이 잘 이루어질수록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므로, ADHD 자녀를 둔 부모 역시 남편의 높은 양육효능감과 적절한 양육 참여가 아내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배우자의 지지를 늘림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구체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즉 ADHD 자녀 양육방법의 교육 뿐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소통하는 법,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ADHD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의 자조모임 등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모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ADHD 자녀를 둔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상담 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스크리닝을 통한 ADHD 판정 이후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개인적인 변인에만 초점을 두어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즉, 자신이 보고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부모 각각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부모와의 자료를 합산하여 분석함으로써 커플 단위 내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상호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자원보존이론을 바탕으로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내적 자원인 양육효능감과 가족환경자원인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의존 모형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ADHD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모의 상호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효과적인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ADHD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제공될 간호 중재 시 부모 커플 대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식과 양육방법 등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배우자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부모 대상의 구체적인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 4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4개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는 ADHD 환자 부모를 편의 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ADHD 자녀를 둔 부모 전체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결론

본 연구는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Hobfoll[10]의 자원 보존 이론과 Cook과 Kenny[13]의 커플관계자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기효과가 있었으며,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는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또한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우울에 직접적인 자기효과 뿐 아니라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있었으므로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의 양육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한편 아내의 양육효능감도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기효과가 있었으며,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는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또한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아내의 우울에 직접적인 자기효과 뿐 아니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내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간접 효과가 있었다. 아내가 지지하는 배우자의 지지 또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기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아내의 양육효능감과 아내가 지지하는 배우자의 지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과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ADHD 아동 부모 대상의 반복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모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 이외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ADHD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변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 ORCID

Kim, In Jeong	<a href="https://orcid.org/0009-0007-7836-4540">https://orcid.org/0009-0007-7836-4540</a>
Chang, Jin-Joo	<a href="https://orcid.org/0000-0002-9942-9434">https://orcid.org/0000-0002-9942-9434</a>
Shin, Sung Hee	<a href="https://orcid.org/0000-0003-4113-3953">https://orcid.org/0000-0003-4113-3953</a>

## REFERENCES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s (5th ed.). 2013. Washington, DC.

2.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ealth data big data hub. [cited 2023 August 13]. Available from: <http://www.hira.or.kr>
3.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cited 2018 June 17]. Available from: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97>
4. Sung NG, Park SO. ADHD tendency of parents with ADHD childr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children. *Korean Journal of Infant Mental Health*. 2021;14(1):31-53. <https://doi.org/10.47801/KJIMH.14.1.2>
5. Park MG, Cheon SM. Effects of the ADHD-typ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child conflict. *The Society for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2016;7(3):87-104.
6. Coleman PK, Karraker KH.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997;18:47-85.
7. Kim SB.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 program based on real time non-face-to-face literature therapy using 'zoom-meetings' 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depression of the mother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cience*. 2021;60(4):107-26. <https://doi.org/10.23944/sers.2021.12.60.4.5>
8. Che GY, Baek ML. Effects of job satisfaction and spouse support on parenting stress in female fire fighter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2015;19(1):87-98. <https://doi.org/10.14408/KJEMS.2015.19.1.087>
9. Lee SJ. Overview of and suggestions for family-oriented approaches o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2013;3(1):1-14.
10. Hobfoll SE. The influence of culture, community, and the nested-self in the stress process: Advancing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2001;50(3):337-421.
11. Kim MJ, Ha MJ. The effects of object relation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stress: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3;18(1):283-303.
12. Nam SH, Han IY, Oh YS. The influence of maternal self-efficacy on parenting stress in family of young children at risk for developmental delays: Based on the conservation of resource theor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014;24:109-30. <https://doi.org/10.22779/KADW.2014..24.109>
13. Cook WL, Kenny DA.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005;29(2):101-9. <https://doi.org/10.1080/01650250444000405>
14. Cha GY, Kim SS, Gil MJ. The effects of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on in middle-aged couples: Analysis using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7;37(2):126-49. <https://doi.org/10.15709/hswr.2017.37.2.126>
15. Yoon HO, Choi HS. Marital conflict and satisfaction toward their child development: A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6;36(3):357-79.
16. Carmines EG, McIver JP. Analyzing models with unobserved variables. In Bohrnstedt GW, Borgatta EF. [Eds.] *Social measurement: Current issues*. Beverly Hills: Sage. 1981.
17. Gibaud-Wallston J, Wandersman LP.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Toron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78. <https://doi.org/10.1037/t01311-000>
18. Shin SJ, Chung MJ.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98;19(1):27-42.
19. Abidin RR.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90;19:298-301.
20. Seo HY, Lee SH. Adaptation and social support for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1994;6:37-68.
21. Randloff, L. The CES-D: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77;1: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22. Chon KK, Choi SJ, Yang BC.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Health Psychology*. 2001;6(1):59-76.
23. Bea BR. Amos 2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017. Seoul; Chungrim. p. 506.
24. Kim JS.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with handicapped children.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16. pp. 1-72.
25. Kuem HS, Shin YH, Kim HY.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 for depression among parents with disabled children: Ba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s and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2):171-8. <https://doi.org/10.5762/KAIS.2016.17.2.171>
26. Park MG, Cheon SM.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parenting stress, marital support, marital conflict, and self-efficacy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marita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2020;12(1):39-62. <https://doi.org/10.35185/kjet.12.1.3>
27. Choi SK.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stress coping styles on parenting efficacy among father with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aster's thesis]. Seoul: Yeonsei University; 2015. pp. 1-59.
28. Jeon BJ.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stress, marital communicatio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der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2016;20:121-44.